

2019년 7월 14일(주일) 오전 11시, 루스채플, 대학교회 대예배

제목: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Go and do likewise)

본문: 아모스서 7:12-17, 골로새서 1:3-8, 누가복음 10:25-37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2017년 1년 동안 대학교회 동역목사로 함께 하였고, 작년 1년간 안식년을 잘 보내고 올해 봄 학기부터는 7년간의 송도 국제캠퍼스 사역을 마치고 신촌캠퍼스로 이동을 하였으며, 이렇게 1년 반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 후반의 말씀은 신약성서의 사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의 말씀입니다. 드라마틱한 비유의 말씀이기에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교회학교에서 연극 시나리오로도 많이 사용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꿰고 있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시험하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의 입에서 오히려 정답이 나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던 계획이 별 효과가 없어지자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한발 더 들어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매우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풀어 말하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는 매우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대답 대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맞아서 죽게 된 채로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시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다며 그렇게도 무시하던 이방인 곧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측은하게 보고는 긴급히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며,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행여나 치료비용이 모자라면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노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려주신 후 예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바보가 아닌 이상 대답은 뻔합니다. 예수의 역질문에 오히려 원래 질문을 했던 율법학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 비유가 유명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격적인 내용이란, 이 비유 속에서 참 이웃으로 여겨지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자비를 얻게 된 사람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 지평을 파격적으로 넓히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이웃은 너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너와 가장 나쁜 관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원수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니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쟁 중에 나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는 원수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원수가 총을 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총에 맞아 죽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도록 실천해 버리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외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즉 외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놓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는 ‘신적 사랑’의 ‘인간적 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인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추상적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신적 버전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질적인 인간 버전인 원수 사랑으로서 몸소 실천해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빌 2:6-8).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눅 23:34)라고 말하시면서 사랑의 대상인 이웃의 범주를 원수로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셨던 본인의 말씀인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 5:43-44)라는 파격적인 본인의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파격적인 원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전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가지 계명을 급기야 단 하나로 요약하면서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 선포된 이 새 계명에 비추어볼 때, 남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랑, 또한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든 만약 제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아직은 못 하겠습니다’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 저의 솔직한 고백이자 제 부족한 모습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솔직히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35).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해보면, ‘너희가 목숨 내놓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매우 인식이 안 좋게 된 것은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처럼 살지 못하기에,

아니 심지어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 매우 세속적인 비사랑적, 반사랑적 삶을 살아가기에 기독교가 현재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 설교자도 원수 사랑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으니 그냥 다 못하는 것으로 하고, 비록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참된 사랑의 실천은 그냥 포기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골백번 들어서 다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실천할 자신은 없으니 사랑은 그냥 최고 좋은 것으로서 머리 깊숙이 간직하고, 예수께서 선포한 새 계명도 그냥 보물 보관하듯이 성경책 속에 잘 보관해두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우리 서로 간 타협하고, 사랑은 빼놓고 믿음과 소망만 강조하면서 그간 해왔듯이 그렇게 잘 ‘믿고 소망’하면서 교회 다니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몰랐지만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롬 7:9-10). 구약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해주신 예수의 ‘새 계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이상, 이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격이 됩니다. 이 새 계명을 썩 빼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겠다는 것은, 마치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전공 필수 과목은 너무 어려워 수강하지 않고서는 그 외 다른 모든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했으니 졸업장 달라고 학교에 떼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전공 필수 과목은 ‘예수처럼 사랑하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자 예수 복음의 핵심인 참 사랑의 실천 없이는 참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으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학자의 첫 질문처럼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뻔히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이 역설적이고도 위선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며, 갈수록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기독교의 현황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 부재’가 우리 신앙인의, 교회의, 기독교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 당장 깨달았다고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원수 사랑을 바로 실천할 수는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목표입니다. 즉 원수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 원수 사랑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노력의 시작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기독교윤리학에서 사랑의 윤리를 말할 때 ‘사랑의 대상’과 함께 다루는 주제인 ‘사랑의 순서’입니다. 사랑의 순서란,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곧 우선순위대로 사랑을 실천하다보면 사랑의 대상의 지평이 점차 확장되고 언젠가는 목표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단계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순서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데로 하라”라고 말한 성 어거스틴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데로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 순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애가 강해진다고들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런 자기애는 고집과 아집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습성이자 진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

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곡된 자기애인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OECD 국가들 중 14년째 자살률 1위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3명 중 한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자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곡되지 않게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자기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여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랑의 실천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나의 가족’을 왜곡되지 않게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게 된 나는 이제 나의친구, 나의 지인, 나의 교인을 스스로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가족사랑, 지인 사랑을 거친 사람은 이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외부인’도 사랑할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정도 사랑의 순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야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요, 사랑의 실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이요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서야 드디어 최종 목표인 원수 사랑도 실천할 마음가짐이 싹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1단계인 하나님 사랑입니까, 2단계인 자기 사랑입니까, 3단계인 가족 사랑입니까, 4단계인 지인 사랑입니까, 5단계인 외부인 사랑입니까, 6단계인 원수 사랑입니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반성을 하시되, 새 계명을 예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사랑의 실천을 멈추거나 실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사랑의 단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도 ‘지속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제시하신 것은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웃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이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자비를 베푸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예수가 아닌 질문자 자신인 율법학자였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통틀어 예수께서하신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37절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입니다.

결국 사랑윤리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웃은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최종 6단계를 머리로 고민하는 고도의 지적 신앙인이 아니라, 1단계인 하나님조차, 2단계인 나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는 예수의 말씀을 최종 대답이요 생활의 지침으로 알고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몸으로 실천하려 노력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노력형 실천가 신앙인이야말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오늘 함께 읽으신 아모스서 7장에서 저주를 받는 아마샤가 아닌 골로새서 1장에서 칭찬받는 사랑의 일꾼 에바브라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순서와 수준과 단계를 직시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의 대상을 한 단계, 한 단계씩 확장시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노력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겸손하고도 솔직한 신앙인,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